

이재명 “농촌 기본소득 어렵지 않아…지역에 예산 추가지원”

전북에서 텃밭 공략…“죽을 힘 다해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”
영화감독·드라마 작가와 ‘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’ 열어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에서 텃밭 공략을 이어갔다.
특히 이날 이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지역 지지층의 반응도 뜨거웠다.

이 후보는 첫 일정으로는 진안군을 찾아 골목상권 상인들을 만났다.

이 후보는 “농촌 기본소득이 어려운 게 아니다.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~20만원을 지원해주면 갈치조림집, 식당 등 다 장사가 잘될 것 아닌가”라고 말했다.

그러면서 “이걸 퍼주기라고 하는데, 국민이 낸 세금을 (국민에게 쓰는 것인데) 퍼주는 무슨 퍼주기인가”라며 “도둑질하고, 훔쳐먹고, 해외 원조하고 이런 데에는 돈을 많이 쓰면서 국민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은 왜 그렇게 아까워하나”라고 되물었다.

이 후보는 또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“사람이 심장과 머리로만 커지고 손발이 썩으면 살 수가 있겠나. (지방)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을 추가지원을 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이 후보는 현장에서 최근 자신을 둘러싼 ‘사법리스크’를 염두에 둔 듯 “죽지 않고, 죽을힘을 다해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”고 발언하기도 했다.

이 후보는 “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다. 총을 든, 폭탄을 든 계엄군을 막은 것이 바로 국민 아닌가”라며 “우리 위대한 국민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 수 있다”고 거듭 강조했다.

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“국내 일자리

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, 오로지 머리에 든 것이라고는 ‘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까’, ‘내 정적을 어떻게 죽여볼까’, ‘내 가족과 친구의 범죄를 어떻게 덮어볼까’ 하는 것뿐”이라며 “그러다 결국 생각해진 것이 비상계엄 내란 아닌가”라고 비판했다.

이어 “김대중 전 대통령도 ‘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’, ‘담배락에 대고 고함이라도 쳐라’라고 말씀했다. 행동을 합시다”라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.

이 후보는 이날 전주 한옥마을에서 영화감독과 드라마 작가 등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들을 만나 문화산업 지원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.

이 후보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과 진행한 ‘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’에서 영화계 지원 방안에 관한 질문에 “독립영화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”며 “최근에 나온 이야기 (OTT) 플랫폼을 외국에서 장악하니까 전부 거기에 종속되지 않느냐”며 “이 플랫폼이 없으니 공용 플랫폼을 만들든지(해야 한다)”고 말했다.

이 후보는 정치인이 되는 데 영향을 준 영화나 소설이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“제가 사는 게 영화 같다”고 대답하기도 했다. 이 후보는 “최근 드라마 ‘폭작 속았수다’를 보며 엄청 많이 울었다”며 “주인공 ‘애순’을 보니 환경미화원 일을 하던 여동생 애자가 떠올랐다”고 말했다.

이 후보는 이후 전북 임실·익산을 방문하고, 그 후에는 충남 청양과 예산을 들르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·연합뉴스

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‘골목골목 경청투어: 국토중주편’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K-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. <사진공동취재단>

‘토박이’ 박지원, 호남 구석구석 민심 경청 정청래, 광주·전남서 선거운동 ‘한달살이’

13일부터 대선 투표 전까지
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에 총력
정청래 “텃밭, 더 정성 들여야”



박지원 의원



정청래 의원

비호남 출신인 정청래(서울 마포출) 의원이 광주·전남에서 ‘한달살이’에 나섰다.

‘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’ 광주·전남 위원장을 맡은 정 의원이 오는 13일부터 대선 전까지 호남에서 한 달 동안 지낸다.

당초 정 의원 측은 지난 1일부터 대선전까지 호남에 숙소를 잡아 한달살이에 나설 계획이었다.

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대법원 상고심 파기환송 선고가 진행됨에 따라 일정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.

정 의원은 광주지역 숙소 한 곳을 정해 활동할 것인지 아니면 이 기간 동안 광주·전남 전역에서

것”이라면서 “민주당 텃밭인 광주·전남에 오히려 더 정성을 들여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반영됐다”고 말했다.

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광주·전남 공동위원장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지원(해남·완도·진도) 의원도 이 기간 광주·전남 구석구석의 민심을 경청한다.

6선의원으로 호남 토박이인 박 의원은 모든 역량을 쏟아 이 후보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.

두 의원은 이 후보가 살피지 못한 광주·전남의 구석구석을 모두 살살이 돌며 여론을 경청하고 이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.

한편,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8일 21대 대선 광주지역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한다. 이 자리에는 양부남 위원장과 광주시당 선대위 관계자, 박지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, 정청래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전남위원장 등이 참석한다.

/정병호 기자 jusbh@kwangju.co.kr

국힘 김문수-한덕수 단일화 ‘내홍’ 전당대회개최중단 가처분 신청도

국민의힘이 ‘여권발 빅텐트’와 관련한 내홍을 거듭하고 있다. 7일 당 지도부는 김문수 대선 예비후보에게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했고, 김 후보 측은 ‘후보 권리’를 강조하면서 맞서고 있다. 김문수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7일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·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.

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“경선 과정에서 ‘단일화해서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’는 것에 공감이었다”며 “무슨 문서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, 각서를 쓴 것이나 다름없는 신뢰를 기반으로 경선을 치른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신 수석대변인은 “특히 김 후보는 가장 적극적으로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직접적으로 천명했다”며 “그러나 후보가 되고 나니까 김 후보뿐만 아니라 많은 측근이 ‘단일화는 없다’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”고 지적했다.

반면 김 후보 측은 지도부가 부당한 압박을 하고 있었다며 반박했다.

김 후보의 김재원 비서실장은 MBC 라디오에서 “당에서 후보를 (대선)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(후보직에서) 고집이 내리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게 충분한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다”고 비판했다.

한편, 김민서(전북 익산시갑) 등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. 이들은 김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“지도부가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를 무리하게 소집해 김 후보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후보 지위까지 위협하는 행태가 드러났다. 당의 민주적 운영과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처사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”며 전국위원회·전당대회 개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·연합뉴스

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!

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

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
개인당 **2천만원** 까지 완전 비과세



자산규모
1조 5천억원

창립 이후
30년 연속 흑자경영

복지장학재단 운영

당기순이익의
9% 이상 지역사회 환원



광주문화신협
대표번호 1644-7990

· 본 점 · 여신사업부 · 양산지점 · 운암지점 · 매곡지점 · 첨단지점 · 동광주지점 · 문흥지점 · 동림지점 · 각화지점